

김기춘 역대급 '모르쇠'... 고영태·차은택은 '술술'

최순실 국조 2차 청문회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7일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특검수사를 염두에 두고 방어막 치기에 나섰다.

그러나 고영태, 차은택, 조원동 증인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게 밝혀 대조를 보였다.

◇김기춘 "모른다, 모른다" = 김 전 비서실장은 특정 사실관계에 대해 '모른다', '알 수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우선 김 전 실장은 "내가 최순실을 알았다면 연락을 하거나 통화를 한 것이 있을 것이다. 검찰이 조사해보면 다 알 것"이라고 강조하며 최씨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 중 전 문화부 차관은 김 전 비서실장의 소개로 최 씨를 알게 됐느냐는 물음에 "아니다"고 답해 김 전 실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이 만났거나 서로 알고 있었다는 진술이 나오면 '최순실을 모른다'는 주장은 오히려 김 전 실장을 옥죄 수 있다.

차 씨는 청문회에서 최 씨가 가보고 해서 김 전 비서실장의 공판에 갔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서는 "공식적인 일은 알고 있지만, 관저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며 자신과 선을 그었다.

◇고영태, 차은택은 술술 = 더불어민주당 이 이사 출신의 고영태씨는 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100벌에 가까운 옷과 30~40개의 가방 등 4500만원에 달하는 옷과 가방을 만들어 최씨를 통해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이날 "옷을 만들어 대통령께 드렸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질

김 "모른다, 사실 아니다" 법적 책임 방어망 구축

차 "청와대 서너번 갔지만 대통령 독대한 적 없어"

고 "대통령 옷 100벌, 가방 30~40개 만들어 전달"

최순실·우병우 끝내 불출석 동행명령 효용성 논란

문에 "네, 제가 드린 건 아니고 옷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옷을 몇 벌 만들었느냐'는 질문에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는데, 한 100벌 가까이 된다"고 답변했다.

고씨는 자신의 회사 제품 가운데 박 대통령이 사용한 가방이 30~40개라고 밝혔다. 자신이 제작, 박 대통령이 들었던 가방의 판매대금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제가 받은 건 오스트리치 가죽제품은 120만원 정도, 악어 가죽제품은 280만원"이라며 이는 도매가라고 설명했다.

고씨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의 질문에 옷과 가방의 구입비용을 다 최순실씨로부터 받았다고 답했다. 고씨는 "본인(최씨) 지급에서 꺼내 계산을 해주었다. 항상 영수증을 드리면 거기에 맞는 계산을 해주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사인(私人)인 최순실씨가 결국 대통령에게 4500만원에 가까운 뇌물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은택씨는 '청와대에 몇 번 갔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박 대통령을 독대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차씨는 "단 한 번도 없다"며 '밤에 대통령을 만난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중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과거 '피겨 여왕' 김연아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던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왜 김연아를 안 좋아했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최순실씨의 조카로 현 정부 문화·스포츠계 정책에 김씨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장시호씨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질문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재빨리 "없습니다"라고 부인했다. 다만 대통령 당선 전인 자신의 결혼식 때 딱 한 번 봤다고 답했다.

어머니인 최순덕씨가 대통령에게 김치를 담가서 갖다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김치장사를 하거나 한 적은 없다"고 '동문서답'을 하기도 했다.

◇동행명령 유명무실 =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최순실씨가 증인석에 앉지 못하게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최씨 등 불출석 증인 11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서 명령장의 법적 성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씨는 앞서 '공방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특위는 정당한 사유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행명령장이란 국회 국정조사의 증인·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이들을 부를 수 있도록 1988년 만들어진 제도다. 위원회에서 발부를 의결하면 국회 사무처 직원이 명령장을 들고 직접 대상자를 찾아가 동행을 요구하는 식으로 집행한다.

얼핏 보면 검찰이 흔히 보내는 출석요구서보다 강제력이 있어 보인다. 점에 서 체포영장과 비슷한 느낌을 주지만 법



"난 최순실 몰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서 김중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답변을 지켜보고 있다. 오른쪽은 고영태 전 더불어민주당 이사. /연합뉴스

원이 발부하는 영장과는 달리 동행명령장은 강제력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즉, 국회 직원이 동행명령장을 들고 최씨 앞에서 동행을 요구해도 최씨가 "싫다"고 하면 구치소 밖으로 '끌고 나올'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동행명령장의 근거인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동행명령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같은 처벌 수순은 대상자 측이 애초 출석요구서를 수령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는 법적 맹점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경우 주소지 부재 등의 이유로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헛되고 헛되도다, 세속의 부귀영화



(167) 바니타스



하르멘 스텐비크 작 '인간생활의 허영'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도서 1장 2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고 다 누렸던 솔로몬왕은 그가 기록한 성경 속 전도서를 통해 허무함의 절정을 고백했다. 천하를 다 가진 진정한 안식을 구하지 못한다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단 한 번의 허영을 의미하는 책, 죽음을 상징하는 조개껍질, 무기의 힘으로도 죽음을 막을 수 없음을 상기시키는 일본도, 세속적인 쾌락을 의미하는 악기 류트, 술병과 더불어 시계와 불 꺼진 램프는 인생의 덧없음을 암시한다.

가장 눈길을 모으는 해골은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주인공이다. 탐욕이나 집착의 순간에 마주한 '해골'은 '죽음의 불가피성'을 각성하게 해주는 모티브로서 한없이 느슨해진 우리를 문득 긴장시킨다.

네덜란드의 위대한 정물 화가이자 바니타스 정물화의 거장이었던 하르멘 스텐비크(1612~1655)의 '인간 생활의 허영'(1645년경)은 바니타스의 전형이다. 이 정물화에는 해골을 중심으로 책과 일본도, 조개껍질, 끈이 달린 술병, 류트, 불 꺼진 램프, 시계, 비단 천 등이 뒤섞여있다. 인간 지식의 허영을 의미하는 책, 죽음을 상징하는 조개껍질, 무기의 힘으로도 죽음을 막을 수 없음을 상기시키는 일본도, 세속적인 쾌락을 의미하는 악기 류트, 술병과 더불어 시계와 불 꺼진 램프는 인생의 덧없음을 암시한다.

가장 눈길을 모으는 해골은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주인공이다. 탐욕이나 집착의 순간에 마주한 '해골'은 '죽음의 불가피성'을 각성하게 해주는 모티브로서 한없이 느슨해진 우리를 문득 긴장시킨다.

<광주비엔날레전시부장·미술사박사>

최순실-고영태-차은택 '삼각 관계' 균열이 판도라 상자 열었다

고 "최씨 직원 인간 이하 취급에 분노 방송사 찾아가 폭로"

박근혜 정부를 송두리째 뒤엎은 국정농단 사건의 이면에는 최순실-고영태-차은택 3인의 얽히고 설킨 '삼각 애증관계'가 작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7일 국회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서는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씨와 그의 수족이나 다름없었던 고영태 전 더불어민주당 이사, 그리고 차은택 전 광고감독은 한때 권력의 맛을 함께 누리던 돈독한 사이였다. 그러나 서로간에 생긴 '관계의 균열'이 결국 폭로로 이어진 것이었다

이날 청문회장에 나온 차씨와 고씨는

세 사람간의 '애증의 역사'를 보여주는 구체적 증언들을 내놨다.

세 사람의 관계는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지난 2012년 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선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빌로빌로'라는 가맹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고씨는 지인으로 부터 가방 신상품을 보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나간 자리에 최순실씨를 처음 만났다.

이날 청문회에서 '남녀관계인가'는 질문도 나왔으나 고씨는 "절대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며 부인했다. 그러던 2014년

최순실씨는 광고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었으면 소개해달라고 요청했고, 고씨는 직원 중에 가까운 사람이 있던 CF 감독 차씨를 소개해준다. 최씨와 차씨는 이를 계기로 급속히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 만난 지 한두 달 만에 최씨는 차씨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할 정도였다.

같은 해 8월 차씨는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에 위촉되는 등 승승장구했다. 그러다가 2014년 말부터 고씨와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다.

고씨는 최씨와의 관계가 틀어진 계기에 대해 "2년 전부터 모욕적인 말과 말의

직원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행위를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최씨와 고씨는 차씨에게 각기 전화를 걸어 하소연하기도 했다. 차씨는 "최순실이 고영태의 집에 찾아가고 들었다"며 "집에서 물건과 돈을 갖고 왔고 그 돈이 본인의 돈이라고 해서 싸움이 생겼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 고씨는 TV 조사를 찾아가 최씨 문제를 제보했다. 고씨는 이날 청문회에서 "2015년초에 TV 조사를 찾아가 적이 있다. 대통령 순방일정이나 차은택의 기업 자료, CCTV 자료 등 여러가지를 가져 갔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무안출발은 조이투어로~

비행기보다 오래 타는 버스는 이제 그만~! 이제부터 무안에서 편안하게 떠나세요

여행길의 즐거움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Tel. (062)234-3222 Fax. (062)234-3141
NAVER 조이투어 검색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금환

추천1. 무안-규슈/오사카 직항 전세기	
★ 초특가 실속규슈여행! (단 3회! 12/19, 12/22, 12/25)	499,000원
★ 고품질 북큐슈여행! (단 3회! 12/19, 12/25, 12/28)	699,000원
규슈 출발일 : 12.16~2.26/3박4일	
산악회를 위한 규슈올레길!	548,000~
기타큐슈 야마구치/미야지마	838,000~
기타큐슈 나가사키/우레시노	838,000~
오사카 출발일 : 1.30, 2.2/3박4일	
오사카/나라/교토/고베	1,168,000~
오사카 유니버설스튜디오/교토/나라	1,168,000~
오사카/교토/와카야마/시라하마	1,298,000~
오사카 설연휴 : 1.27/3박4일	
오사카 유니버설스튜디오/교토/나라	1,388,000~
오사카/교토/와카야마/시라하마	1,458,000~

추천2. 무안-라오스 직항 전세기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가장 가고싶은 곳 1위!!	
★ 초특가 12/28, 1/9★	
[육로]비엔티엔/방비엥/루앙프라방	949,000~
출발일 : 2016.12.28~2017.1.21/3박5일	
[항공]비엔티엔/루앙프라방	1,498,000~
[항공]비엔티엔/방비엥/루앙프라방	1,548,000~

추천3. 무안-다낭 직항 전세기	
출발일 : 2016.12.30~2017.2.24/3박5일	
[관광]다낭/호이안/후에	1,149,000~
[골프]다낭 골프 54홀	1,649,000~
※공통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TAX, 전일정식사, 관광지입장료, 숙소, 여행자보험, 기사 및 가이드팀	
※공통불포함사항 : 여권 및 개인비용(골프상품만 클럽 중식 불포함)	

추천4. 무안-대만 직항 전세기	
출발일 : 2016.12.7~2017.2.26/3박5일	
[실속]타이페이/야류/화련/지우펀	699,000~
[풍격]타이페이/야류/화련/지우펀	799,000~
[실속]타이중/야류/화련/지우펀	899,000~
[풍격]타이중/야류/화련/지우펀	999,000~

<일본 전세기 특전>
스타플라이어항공 / 기종 : A320-200 / 좌석 : 150석

★한별제품★
한별에비뉴 고급 여행가방 증정!
(4인 가족 기준 1개 증정)
※실속 상품은 제외

★항공특가(항공권편도) 선착순 5명★
무안⇄기타큐슈 : 편도 50,000원부터~
무안⇄오사카 : 편도 98,000원부터~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3-1호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여행 1억 원 국내여행 5천만 원) 관광진흥법제정기금 공방 및 부부 이혼료 유류할증료 포함
*교통비 : 항공 및 선박 운임(비/전세)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율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금세 가입업체 *역시 계약서(최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결제방법(현금/카드) *결제일(결제일) *최소 출발인원 : 상용에 따라 다름
이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